

불순종한 요나의 틀에서 순종하신 예수의 틀로

-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

요나1:1-3, 누가복음 11:29-32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대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 새로운 주의 제자로 날마다 재창조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됨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다. 요나는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스블론 가드 해벨지역 출신이었다. 요나라는 이름은 신약에 와서는 요한과 같은 이름이다. 평화와 비둘기를 뜻하는 이름이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볼 때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

신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성경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표적은 요나 밖에 없다.’ 말씀하셨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3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장면이고 중간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장면이며 후반부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요나서의 내용을 우선 요약하겠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세상의 끝인 다시스를 향해하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 이스라엘에서 정 반대쪽인 다시스로 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도망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 했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배 아래층에서 잠을 잤는데, 배가 항해를 시작한 후 폭풍이 바다에 큰 물결을 일으켰다. 겁에 질린 선원들은 짐들을 배 밖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다. 그러다 제비를 뽑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으로 판명되었다. 요나는 자신의 제안에 따라 바다에 던져진 후 폭풍우는 그쳤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것은 요나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비뚤어지면 ‘죽어도 나는 못 해.’ 하지 않는가. 요나도 ‘죽어도 못 해.’하는 심정으로 물속으로 빠진 것이다. 우리의 기준, 이념, 세계관을 우리의 기준에 맞춘다면 항상 틀릴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동안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그는 그 제사야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상함 없이 해변으로 인도하셨다.

그 후에 비로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성읍 전체에 제앙의 메시지를 외쳤다. 그 때 예상 밖에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진실한 회개의 자세를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멸망의 위협을 제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보고 하나님께 화까지 내면서 불평을 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녕쿨로 햇빛을 가려주셨지만, 그날 밤에 벌레로 그것을 시들게 하셨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또 죽기를 구하였다. 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4:10- 11)” 위의 내용으로 요나서는 끝난다.

1. 우선 요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다. 요나서 1장 3절이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문제 생기면 피하지 말고 교회, 예배당에 오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학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부모님 피하면 그 친구는 가출해야 한다. 논문을 쓸 때 보니까 제일 싫은 것이 교수님 만나는 것이다. 가서 만나면 꾸지람만 계속 듣는다. 그러나 얼굴 피해 다니면 절대로 졸업 못한다. 하나님 앞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 나의 연약함을 기준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기를 바란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하는 배삯이 저렴했겠는가. 아무리 저렴했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었을 것이다. 불신앙하는 데는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웃음)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아깝다. 그만큼 우리의 체질이 악하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인 것이다.

(2) 요나는 심한 풍랑 중에서도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요나서 1장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 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히려 편안하게 느낀다. 사람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데 힘들다. 오히려 하지 않는데 편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언약의 여정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이러한 악한 체질을 말씀을 통해 바꿔야 한다.

(3)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자

신이 바다에 빠져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보면 요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 계획까지 꿰뚫어 본다.(웃음) 근데 마음이 아주 못됐다. 안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기를 바란다.

2. 다음으로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새 틀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1)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와 같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악행을 했던 나쁜 민족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다민족선교이고 하나님의 새 틀이며, 요나서의 핵심메시지이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2)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니느웨 성의 복음화가 너무나도 쉽게 절대가능으로 변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단 하루만 전도캠프를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할 때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캠프이며 선교캠프이다.

(3)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전도와 선교사역에 사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새 틀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좀 부족하여도 우리들의 기준으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도 중요한 사역에 쓰시기 때문이다. 요나서 4장에서 보면 요나는 끝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이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본 요나의 모습이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성질이 못됐다.(웃음) 이렇게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다.

결론이다. 오늘도 요나서 말씀에서 미래전도 6단어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 하도록 하겠다.

1. 첫 번째는 Leverage 이다.

우리들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용서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전도의 지렛대이다.

2. 두 번째는 Vessel, 그릇 이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그 어떤 사람들과 민족들도 품을 수 있는 복음적인 체질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3. 다음은 Transmission 이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과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237나라에 전달하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4. 네 번째는 Nobody 이다.

아무도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선택하여 보내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며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5. 다음은 platform 이다.

요나라는 이름은 결국 복음의 중심단어가 되었다.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실 때 요나를 언급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렘넌트, RUTC, 237이라는 말이 세계복음화의 대명사와 중심이 되는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6. 마지막 여섯 번째 단어는 outsourcing 이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체험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다. 우리들의 실패한 사역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성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나보다 더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끔도 아니고 자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붙잡아주셔서 이 믿음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대의 3서밋의 응답을 받으며 3단체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국민 전체가 화합이 되어서 오직 세계를 살리고 복음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